쿠콘 데이터 스크래핑부(부산)

작성일: 2025년 06월 02일

작가: 호언홍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

아침식사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잘 보냈습니까? 어디에서 놀러 갔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만 계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번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곱(7) 시에 일어났습니다. 침실을 정리하고 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하기 10 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양레우스 앞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2 개 샀고 하상동 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게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는 오천 원(5, 000)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한국어 수업

저는 토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덟(8) 시간 공부합니다. 수업 시간은 아홉(9) 시 반부터 여섯 시까지 입니다. 수업은 많이 오래 걸리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수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캄보디아 사람이 3 명 있고 베트남 사람이 3 명 있고 필리핀 사람이 2 명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이 열 아홉(19) 명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날에 저는 여덟(8) 시에 출발하고 여덟(8) 시 사십(40) 분 정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로 탔습니다. 주말이라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몇 명만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수업에 가장 먼저 온 학생이었습니다. 몇 분 기다리고 다른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선생님도 오시고노트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하고 노트북을 준비해줬습니다. 아홉(9) 시 30분쯤에 선생님은 출석을 확인하시고 나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지난 주에 배웠던 단어를 복습하였습니다. 다음 수업의 제목은 “지역 복지 서비스” 입니다. 그 다음 수업은 재미있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두(2) 페이지를 공부했고 시간이 열 두(12)였습니다.

점심

아침 시간은 진짜 빠릅니다. 점심시간은 열두(12) 시부터 한(1) 시까지 입니다. 한(1)시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학생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돼지국밥 가격은 구천 구오백 원(9, 5000) 입니다. 학교에서 식당까지 걸어서 십(10) 분 정도 걸립니다. 주말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마트에 가서 페퍼민트향을 사 먹었습니다. 저는 페퍼민트향을 매일 먹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페퍼민트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학교에 돌아가고 쉬면서 다른 학생이랑 많이 대화하였습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힘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후 수업

한(1) 시간 쉰 후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한 (1)부터 여섯(6) 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긴 쉬는 시간이 없는데 한(1) 시간마다 십(10) 분쯤 쉬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십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쉽게 이해하게 설명해주셔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선생님이 한분 아닌데 모두 다섯(5) 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연습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이트 받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말하기, 듣기, 쓰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하기 연습이 많아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우리 수업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를 자주 소개해주셔서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하는 방법, 한국 문화, 전통 옷인 한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셔서 출신 나라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원래는 온라인 수업만 듣고 있었는데 지루한 시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수업 끝난 후에 노포역에 놀어 갔습니다. 십오분 정도 걸렸습니다. 노포역 앞에 옥수수를 파는 가게 있어서 한 개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서 삼십(30)분 동안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고 샤워하고 와이프랑 많이 통화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공부할고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감사합니다.